

연중 제33주일(평신도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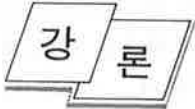
제 1독서 : 잠언 31:10-13, 19-20, 30-31

제 2독서 : 1데살 5, 1-6

복 음 : 마태 25, 14-30

순정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마태 25, 21)



복음전파는 남의 일인가



문치상(비오) / 평신도협의회 회장

‘믿음이 약해서...’ ‘신앙심이 약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평신도들은 겸손(?)한 것인가, 아니면 의무회 피인가. 아마도 의무유기이거나 본분의 망각이리라.

비위가 약해서 인지도 모르겠고, 아예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로 치부해서 그러는 걸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본다. 다만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어서 그러리라 믿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교의 대상인물들은 천주교에 대해 우리 신도들보다 더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배운대로, 아는대로, 그것도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성실하고 끊임없이, 열성적으로, 진심을 심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느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리 성서 속에서 성서와 함께 살아야 한다. 읽고 또 읽고 새기면서 한 살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선교사업은 신부님이나 수녀님, 사목회 임원이나 레지오마리에 단원의 전유물인 양 미뤄 버리는 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게 큰 문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진리를 찾아 해매는 사람들과 어떤 주인을 섬길지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아닌가. 하느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 왜냐면 평신도는 세상을 건설하는 신자로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신도들은 현세적 일에 종사하면서 주어진 역할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생활화를 가능케 하고 있다.

그를 위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능력을 주셨다.

그 능력과 자질은 자기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마태 25, 29)

충실히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일이 맡겨지고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하느님 나라는 온 인류 안에 건설된다.

오늘은 평신도의 날이다.

평신도들은 세상 일 안에서 또 세상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까지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해야 한다.



우리는 함께 사는가?

한 상 갑(바오로)

□ 독방을 좋아하는 사람들

먹고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들은 한 방에서 큰 이불 한 채를 서로 끌어당기며 잠을 잤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아들 딸 구별없이 둘만 낳아 기르는 요즘 사람들, 식구들이 제 각각 방 하나씩 차지하고 사는 가정들이 많아졌다. 방에 틀어박혀 방문꼭지만 누르면 전혀 남남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거기다 식구들의 생활 모형도 다 제 각각이어서 식구끼리 얼굴 대하기도 참으로 어렵기만 하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입시준비 때문에 모두들 바쁘다고 한다. 그러자니 어떤 때는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사는 것인지 하숙생으로 모여 사는 것인지 구별이 잘 안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식구들끼리의 대화란 그저 돈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정작 집안의 중요한 이야기조차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경우마저 허다하다.

자기만의 공간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병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럿이 함께 있는 방이 좋다고 한다. 교도소는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은 지옥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이다.

□ 미사가 끝났으니 빨리 갑시다

인사치레가 무언지, 주일미사가 끝나면 신자들이 3분도 채 안되어 성당을 빠져 나간다. 어떤이는 하루에도 몇 건씩이나 되는 결혼식장 방문 때문에 바쁘다고 한다. 그러다보면 어떤 때는 잔치집을 돌아다니면서 점심도 못 얻어먹는 경우조차 있다고 푸념을 한다.

모두들 바빠 사는 요즘 신자들이 주일미사에 오면서 승용차를 타고 오는 경우가 많다.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성당에 오면서도 미사 끝나기가 바쁘게 또 어디론가 빨리 가 보아야 할 곳이 있어서 차를 타고 오게 마련이다. 어쩌다가 차를 타고 온 신자가 미사 후에 성당에 더 머물고 싶어도 어

렵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차가 빠져나갈 수 있게 자기 차를 빼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사참례로 의무사항을 다한(?) 신자들은 썰물 빠지듯이 흩어지고 만다.

□ 걸어서 10분 거리

서울교구는 앞으로 10년 안에 1백2개의 성당을 지을 계획이라 한다. 신자들이 걸어서 10분이면 성당에 올 수 있도록 신자수가 많은 본당을 분리하는 일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그래서 한 본당의 관할구역 크기를 반지름 6백미터 정도로 하고 신자의 수도 4천명으로 제한한다고 한다. 본당의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거리가 오리의 반절보다 조금 먼 1천2백미터에 불과하게 조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울교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다음과 같은 배경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내년도 서울교구 사목교서는 “소공동체를 발판으로 삼아, 하느님 말씀에 맞들이고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의 뜻을 오늘 실행하며,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복음화를 꾸준히 추진해 가자”는데 기본정신을 두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복음화-내 자신이 먼저 변하고, 그래서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은 우리 모두 서로 함께 살려고 마음쓰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숲정이 산책



시

강숲 길



최 형(요아킴) / 함열 천주교회

이 땅이 생기면서 물은 흘러내리고
 사람은 수풀 나무 기어서 오르내리거나
 하늘 밑 흙밭로 거니는 별거숭이였더란다.

웃을 입은 오늘날 강물이 비록 검을지라도
 푸른 숲이 홀랑홀랑 눅혀질지라도
 온 천지를 우렁거리며 날고 누발지라도
 죽음으로 이어지는 새 목숨은 돌아가고파 한다.
 굵은 나이테 더 두를수록
 강숲으로 길을 내고파 한다.

거기에는 풀잎 이슬로 빛나는 햇빛이 있고
 물고기떼 알을 슬는 물굽이가 있고
 철 따라 울며 깃들이는 새 둥지가 있다.
 강숲머리 들빛도 추억처럼 멀고 가까운 것이다.

한갓진 만큼은 더럽혀지지 않은 강물
 보다는 더 맑은 숲 속 공기 마시며
 봄 여름 내내 은총의 땀 흘리다가
 한 보람 누우런 들바람을 쐬 일이다.
 눈 덮인 강숲 길에 발자국 낼 일이다.

특집 - 평신도 주일을 맞아

귀 기울여



김응택(베드로) / 평협 사무국장

교회의 많은 가르침 속에서 평신도의 역할과 참여는 크게 요구되고 있지만, 평신도 주일을 정하여 강조하는 만큼 우리의 사명에 제대로 응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에 있다고 본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불러 주기만을 기다리는 마음과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한 마음이 요인이라고 본다.

내년이면 교구 설정 60주년과 2천년 대회를 준비하는 시기에 우리 모두 순교자들의 삶을 본받읍시다.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평신도의 소명인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일에 열정을 가집시다. 우리 평신도들이 신명나게 생활할 때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나게 살아 봅시다.



박정애(올리아) / 가톨릭문우회 회장

한국 천주교회 2백주년 기념 행사 준비 세미나에서 어느 평신도의 말이 생각난다. "2백살을 먹었는데도 감정 수단 자락을 붙잡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기형아적인 평신도 상"이라고 했던가. 이 말이 절대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말이다.

신자들이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항상 높으신 분들의 권위 밑에서, 또는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기보다는 지시하는 것만을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교육을 받아 온 것은 아닌가.

가장 먼저 자치 교구가 된 자존심 있는 우리 전주 교구는 과연 어느 수준의 평신도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퇴짚여 불일이다. 교구 예산의 몇 %를 신자교육비로 쓰고 있으며,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식별해 볼 필요가 있다.



김경주(아오스딩) / 숲정이 성당

해마다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 평신도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각자의 신분에 따라 자기 역할이 있듯이, 각자 위치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실상 생활 안에서는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교구가 10년 사이에 선교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사실과 냉담자가 신자 4명중 1명이라는 통계를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평신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 둘 떨어져 나간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 어느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지 한 번쯤 집고 넘어갈 문제이다.

각 본당을 사목하는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평신도들이 서로 존경과 사랑으로 함께 의견 나누는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해야 하겠다.

문 병 원

직장여성을 위한 공휴일이 없는 병원
(평일 후9시, 토요일 후5시, 공휴일 후1시)
이 사 장 문지식(레나도)
병 원 장 김순중(안젤라)
상무이사 마취과장
☎ 82-8833~6.84-2918

선경 컴퓨터 타운

삼성, 삼보 및 국내의 모든 컴퓨터 총판
(아르바이트생 모집합니다)
이 병 균(프란치스코)
정 미 선(글 라 라)
평화주공 1단지 입구
☎ 231-2237

연지곤지 웨딩 이벤트

드레스 35만~40만원
<신부화장, 부케, 폐백옷 무료>
유 순 이(가타티나)
전동성당 사내버스 승강장 앞
☎ (주)82-2347 (야)225-5755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C-T촬영 · 일반X-선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촬영
유방촬영 · 성인병검진 · 자동차적성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들어 봅시다



조형식(프란치스코) / 전동 성당

지난 11월 3일 해성고등학교에 서는 7개 본당 청년들의 비공식(?) 축구시합이 있었다. 어렵게 마련된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선의의 경기와 열띤 응원으로 일치를 확인하였고, 참가비를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공동체의 온기를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교구 대부분의 본당 청년회는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년 개개인의 소명의식 결여 등이 우선 문제가 되겠지만, 교구 차원의 청년대상 프로그램중 활성화된 것은 '선택' 프로그램 하나밖에 없는 듯하여 아쉬움이 더해진다. 앞에서처럼 정기적인 체육대회나 피정, 각종 주제의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구의 청년들이 함께 하는 자리가 많아져 미래의 교회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더욱 일치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으면 한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그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부족함을 느꼈던 점 또는 교구에 바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말해 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난에 적극 참여해 주신 다섯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편집부 -



황영석(미카엘) / 교리교사연합회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생각보다 학생들에게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했던 교리교사 시절, 이제는 그렇다.

교리교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 교구에 바람 들을 정리해 본다.

첫째,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절대 부족하다.

둘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자료 및 장소 제공이 미흡하여 열린 교육 실현하기가 어렵다.

셋째, 신부님들이 바뀔 때마다 신부님들의 사목지침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우리 교회도 너무나 교리적 차원보다는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예를 들어 성문제, 마약, 학교 폭력같은 사회 참여적 주제를 교육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요심이 (1212) 김병호



감사합니다
조모(김 아가다)을 잃은 제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영원한 안식을 빌어 주신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모든 신자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김 교 동 신부

축
전체수석
전주예술고 성 세 연
합격
전북과학고 조 나 영
전주성심여중 동창회

송년 회원 감사제
- 작은 예수회 -
• 일시: 11월23일(토)~24일(일)
• 장소: 서울 동촌동 KBS 88체육관
• 대상: 회원 및 모든 신자
• 문의: (02)777-6444
(0356)84-5997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이상의 미혼 여성
• 일시: 11월24일(일) 오후2시~5시(매월 넷째주일) • 문의: (0527)52-4241, 3575
• 준비물: 신구약 성서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 일시: 11월24일(일) 오후2시
• 장소: 광주 가톨릭센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
• 문의: (02)3673-2525
• 대상: 선교사제를 지망하는 고교생, 대학생, 일반(미혼 남, 녀)

성바오로 수도회 성소모임
• 대상: 매스컴을 통해 복음을 전할 미혼 남성
• 일시: 11월23일(토) 오후5시
• 장소: 전주 성바오로 서원
• 문의: 252-3398

사목 단상

성직자 묘지에서 미사를



김교동 신부 / 도통동 천주교회

사제관 뒤로 보이는 지리산의 나무들도 이제는 아름답던 자태를 버리고, 어느 새 옷을 하나 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기 위한 준비를 하는 듯 합니다. 우리는 대자연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11월, 위령성월은 계절적으로 인생이란 무엇인지, 또는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묵상자료들을 제공하는 시기입니다. 며칠 전 저희 본당 관할구역에서 부산 교구 사제(조장례 신부) 한 분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느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 분은 서품받은 지 4년밖에 안되는 젊은 사제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병원 측의 무성의한 조치와 판단 착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례미사에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는 수많은 교우들과 동료 사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돌아가신 분의 추억과 생생한 기억으로 슬퍼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제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쓸쓸했습니다.

매달 성직자 묘지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는 선배, 동료 사제들. 한두 해는 우리와 함께 살다간 그분을 기억하여 기일이라도 기억하고 찾아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의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제가 성직자 묘지에서 매달 미사를 드리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습니다. 10여 년 전 몇몇 신자 분들이 신부님들이 살아 계실 때에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찾아보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찾아 뵈지 못하고 기도 속에서도 점점 사라짐을 안타깝게 여기어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영일 신부님께서 제게 부탁하여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김 신부님을 찾아뵈었을 때 신부님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내가 죽으면 누가 이 미사를 봉헌할까” 하고 걱정하기에 다음달부터 신부님 곁에서 미사를 드리겠노라고 약속을 드린 다음날 미사를 드리러 갔더니 신부님께서서는 운명 중이셨습니다. 마치 나는 신부님의 유언을 받드는 마음으로 그 후로 매월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둘째주 월요일에 있는 이 미사에는 매월 40여 명에서 많게는 200여 명의 교우들이 비가 오나 눈이오나 빠지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한 가족인 사제들이 먼저 기억하고 챙겨야 함에도, 매월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교우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에 이 미사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 말없이 맞이해 주시는 선배 사제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죽음’이 그저 ‘모든 게 끝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음은 단지 ‘우리 곁을 떠나는 걸모습일 뿐’입니다. 실상 성직자 묘지에 계시는 신부님들도 생전에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매월 성직자 묘지 미사에 함께 해 주시는 범석규 신부님을 비롯한 많은 신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 때문에 시간과 정열과 생명을 바치신 신부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직자 묘지 미사

- 때 :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 치명자산 성직자 묘지

015 팔달통신

- 전북이동통신 팔달로 대리점 -
휴대폰, 카폰, 호출기
오 현 중(스테파노)
유 미 숙(마 르 타)
전주 오거리 국민은행 옆
☎ 84-0015~6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상 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로코코 인테리어

실내장식, 주문가구, 불박이장, 중문,
욕실장, 집수리, 선반, 보조키, 건조
대, 커튼, 버터칼
서 원 식(아고보)
중원 초등학교(옆)
☎ 78-0190~1

무스탕·가족의류

공장 직판
양 덕 레(도미나)
익산 기계공고 뒤(해양산업)
☎ (0653) 841-9622
54-4854

교구소식

❖ 교구장 2천년 대회년
주교특별위원회 참석
· 때 : 11월21일~22일
· 장소 :

❖ 교구 성소후원회 임원단 모임
· 때 : 11월24일(일) 오전10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 혼인강좌
· 때 : 11월24일(일) 오전9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 회비 : 각 15,000원

❖ 사회교정사목 후원회 월례미사
· 때 : 11월18일(월) 오전10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 사제 어머니회 모임
· 때 : 11월20일(수) 오후2시
· 장소 : 전동성당 총연관

❖ 천호피정 안내
· 때 : 11월21일(목)
· 주제 : 하느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죽음
· 감사 : 정승현 신부
· 때 : 11월23일~24일

· 주제 : 죽음! 절망인가?
희망인가?
· 감사 : 이종희 신부
· 문의 : 73-6600

❖ 성언복지원 이전 신축 기공식
· 때 : 11월18일(월) 오후 2시
· 장소 : 서수면 축동리 외무장 마을
· 주제 : 이병호 주교

❖ 송년홍 신부 전화번호 변경
· 001(002)41-026-323-37-98

❖ 장상호 신부 주소
La Parroquia de San Lucas
Pomacochas, Bongara, Amazonas
PERU

❖ 이사정 신부 주소
Maximi lianeum
Leohard str. 12
8001 Zurich
☎ 001(002)-41-1-2510259(교환)

❖ 윤양호 신부 주소
CoNVITTO S. TOMMASO
Via Degli Ibernesei, 20
00184 Roma-ITALIA
☎001(002)-39-6-6791746

❖ 축! 영명
· 23일(성클레멘스) 윤양호 신부

■ 권해드립니다 ■
· 신약성서의 길잡이

E. 샤르팡티에 / 오영민
바오로딸 / 7,500원

이 책은 성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총체적 관점을 제시하는데 진력하고 있으며, 복음서와 서간들의 텍스트 자체로부터 출발하지만 그것들에 앞서 존재하는 장면들을 발견하고자 노력했다.

보다 체계적인 신약성서의 내용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루가, 요한, 바오로 등의 신약성서 제자들까지도 친숙해질 것이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음식찌꺼기나 머리카락, 화장지로 인하여 하수가 막힌 경우 베이킹 소다로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뜨거운 물과 베이킹소다 반 컵을 번갈아 하수구에 부어 버립니다. 잠시후면 뿌뿌-소리를 내며 물을 빨아들여 하수구가 말끔히 뚫어집니다.

- 음식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덜어서 먹고 가능한 한 남기지 맙시다.
- 음식찌꺼기는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물기를 짜낸 후 봉지에 싸서 버립니다.
- 싱크대 배수구에는 걸름망을 설치합니다.
- 환경을 더럽히고 파괴되지 않도록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사용 물품은 철저한 분리수거 합니다.

매일 성서 묵상 잡지 아름의 우물(월간지)

「아름의 우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기쁨으로 당신을 초대할 것입니다.

- 가격 : 1,000원 · 1년구독 : 10,000원
- 연락처 : 성바오로서원(☎252-3398)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국비생 모집·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임혜연 웨딩샵

드레스, 예복 대여전문점
메이크업, 신부화장

임혜연(엘리사벳)

전동백화점 앞 에스프리 2층
☎ 85-5041

진도 패션 전주점

모피, 무스광, 남성복 전문매장

· 연중무휴

손한성(바오로)·정정남(가타리나)

전주시 교사동(구)역전오거리 천보당
☎ 231-2005~7

아카데미 완구 전문점

· 베고 베레고 이태리제 전동 모타자
동차, 오토바이, 유모차의 개릴 미국
유아용품 전문회사 전문총판
· 리틀타익스, 스텝2 수입품 다수
· X-마스 휴리 도산매
군산역 앞
☎ (0654) 446-1853

LG냉난방 총판

에어콘·온풍기·공기정화기·제빙기
업소용냉장고·중앙집중식 냉난방
· 12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원승연(도밍고)

백제로 방상경기장 맞은편
☎ 241-2000, 227-0902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주임신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배
F A X 82-9664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1. 평신도 주일: 2차헌금 있음
2. 기정방문안내: 20일(수) - 후 1시 30분, 남노1, 2, 3만
21일(목) - 전 9시30분, 동진1만
후 1시 30분, 동진2만
22일(금) - 후 1시 30분, 남노4, 5, 6만
3. 합동연도: 19일(화), 20일(수) 미사 후,
양 꾸리아에서 미사 봉헌
· 위령미사 및 특별강론: 28일 저녁미사
* 죽은 교우들의 영혼을 위한 합동미사와 애령봉사에 대한 특별강론
4. 성서주간: 24일~30일 *그날 성서 구절을 한번 더 읽읍시다!
5. 모식: ①자비의 모후Cu. - 오늘 공식미사 후
②천사의 모후Cu., 성우회 - 24일 공식미사 후
6. 새 미사통상문 판매: 사무실 1부 - 500원
* 12월1일부터 미사통상문이 바뀝니다.
7. 금주 전례: 새벽-남노구역, 저녁-동진구역
공식 안내-성우회, 해설-이수원, 독서-①서남석 ②유재간
신자들의 기도-김종호, 신영희, 봉헌-오점엽 부부
8. 차주 전례: 새벽-인후1구역, 저녁-인후2구역
공식 안내-장우희, 해설-손만술, 독서-①이봉기 ②조분남
신자들의 기도-한기성, 황희숙, 봉헌-송석창 부부
9. 금주 청소: 중노 17, 18만
10. 차주 청소: 중노 19, 20만

□ 지난주 봉헌금: 988,710원 □ 교무금: 2,169,5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박상기

1. 오늘은 평신도 주일: 평신도 강론과 2차헌금 실시
* 강론-박상기(안드레아), 김용석(요한), 신일균(아오스당), 유종만(안토니오)
2. 각 심심단체는 96년도 결산과 97년도 예산 및 행사계획서볼 30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서교실: 19일(화) 민수기 25장 - 36장
4. 교무금을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7년도 부활 때 영세할 예비자를 인도합니다.
6. 주간 모임: ①성모회 - 21일(목) 전 10시
②울프레아 - 21일(목) 저녁미사 후
③빈첸시오회 - 23일(토) 전 10시
7. 차주 모임: 빠스카회
8. 대건회 임원개편: 회장-정승관(바칸), 총무-조윤일(다두), 재무-구본장(펠라시오), 감사-김영서(프라치스코)
9. 금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장우희 부부
봉헌-안철만 가족
10. 차주 전례: 해설-유복규, 독서-강기연 부부
봉헌-강희술 가족
11. 성당 청소: 23일(토) 겸손하신자의 모후Pr., 자비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779,850원 □ 교무금: 1,076,000원

*** 상관** 주임신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김병열
F A X 85-6652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강덕용

- 11월은 위령성월: 연령을 위해 기도하며 죽음을 묵상합니다.
- 정성된 기도와 봉헌(교무금, 주일헌금)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 오늘은 평신도 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1. 금주 모임: 성가대, 새영세자모임, 애령회봉사자모임
2. 차주 모임: 성모회, 자모회, 성마리아Co.
3. 미사시간 변경: 일요일 새벽미사 - 후 7시 미사로
4. 분당발전을 위한 2차헌금: 다음주일 실시
5.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바람
6. 성당청소: 금주-신비로운 장미Pr.
차주-모든 성인의 모후Pr.
7. 금주 전례: 해설-우경숙, 독서-①남현준 ②김금자
봉헌-안복성 가정
차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한동욱 ②이석남
봉헌-서정희, 최영순 자매

□ 지난주 봉헌금: 289,500원 □ 교무금: 273,000원

*** 서화동** 주임신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F A X 86-4929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범부

● 12월8일은 본당의 날입니다.

1. 성지순례: ①일시-오늘 공식미사 후
②장소-본당 마당에서 여산까지 버스로 출발.
여산에서 천호성지까지(걸어서)
- ③준비물-목주, 간소복차림, 주막밥, 석수, 기타
2. 교육: ①일시-24일(일) 전 10시~후 1시
②주제-신앙인의 삶
③강사-이순성(베드로) 신부님
3. 공동미사 및 나눔: 12월8일(일) 전 10시30분
연차충진목회 및 기쁨잔치: 12월8일(일) 후 1시
* 전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오늘은 평신도 주일: 2차헌금 실시

1. 예비자 교리 안내: 매주 수요일-후 7시 30분, 예비자 교리실
매주 수요일-후 5시 30분, 예비자 교리실
* 예비자분들은 빠짐없이 출석 바람.
2. 금주전례: 공식미사 해설-진경후(사베리오)
독서-①송대영(다니엘) ②박복자(아가다)
3. 차주전례: 공식미사 해설-김선애(가벨라)
독서-①전경후(사베리오) ②김성희(율리안나)
4. 청소안내: ①금주-사랑의 샘Pr. ②차주-상아탑Pr.

□ 지난주 봉헌금: 1,067,600원 □ 교무금: 2,088,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송영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주 환

- 11월은 위령성월: 선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축! 남 엘리사벳 수녀님 영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7일)

1. 금주 모임: ①평신도 주일 2차헌금
②바느의 성모 꾸리아-후 2시
③사목회-후 8시
④청년회-후 8시
2. 주간 모임: ①성화회-18일 후 7시
②성모회-19일 전 11시
③빼앗다회-20일 전 11시
3. 성지회 가을 피정 걸 릴레회: 17일 10시, 장소-소양 대승리
4. 글로리아 성가대 임원개편: 단장-김종열(바오로)
부단장-우동기(벨라도), 총무-김은희(젬마)
5. 감사헌금: 익명-삼만오천, 이진이(세실리아)-오만,
감사합니다.
6. 차주모임: ①교부금 납부주일
②차량 축복식-공식미사 후
③성 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 성지개발 헌금 정성껏 봉헌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371,170원 □ 교무금: 3,085,000원

*** 평화동** 주임신부 232-5001 수녀원 232-5004 주임신부 이삼심
F A X 232-5003 사무실 232-5005 사목회장 황의옥

- 사목회장: 황의옥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근 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97년도 교회달력: 한 가정에 한부씩 가져가세요.
- 평화성진신축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 성전신축 신입과 납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겨울 난방을 위해 우리모두 주유권을 이용합시다.
- 오늘은 평신도 주일: 황의옥 회장님 강론
교구 평신도활동을 위한 2차 헌금

1. 오늘 모임: ①공식미사 후-임마누엘, 한빛, 노엘, 성소후원회
②저녁미사 후-청년회
2. 가정방문: 19일(화) - 15구역 1만~3만
20일(수) - 15구역 4만~6만
3. 성전 신축 봉헌금 신입구좌(1구좌 100만원)
입태환3, 이병입1, 강택수1.5, 이선자0.4, 이달순0.2, 김복순
0.1, 임종대0.1
소계: 6.3구좌, 총계: 492.9구좌
4. 성전신축 봉헌금 납부: 임종대10만, 김옥순10만, 김동국20만,
최복순20만, 김학근3만, 김중환10만, 황호경2만, 윤원영10만,
이계영100만, 최권성10만, 김대욱10만, 이훈덕30만, 이원남3
만, 이병입20만, 최안숙10만, 국경순1만, 정마리아(타분당)
1만, 김주일10만, 합선해10만, 이강윤10만, 조영숙10만, 이흥현
100만, 소계 4,100,000원, 총계 76,205,020원

□ 지난주 봉헌금: 1,752,900원 □ 교무금: 1,210,000원